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와 ‘한국전쟁’*

- 1950년대의 일본열도가 본 ‘한국전쟁’ -

소명선**
smskk0604@jejun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1950년 전후의 일본사회와 재일조선인
3.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 속의 ‘한국전쟁’
4. 동시대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5. 나오며

主語: 1950년대(1950s), 재일조선인(Zainichi Koreans), 에스닉잡지(ethnic magazine), 한국전쟁(Korean War), 동시대 일본문학(the Japanese literature during the same period)

1. 들어가며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지난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함께 65년간 지속된 휴전 상태로 인한 상호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념이 다른 2개의 국가가 생겨났고, 이러한 이념 대립은 결국 내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과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었다.

한반도가 동족간의 혈전을 치르고 있는 사이 일본은 GHQ(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병참기지였던 일본은 한반도의 동란을 경제 재건의 발판으로 삼아 경제 부흥의 길로 들어섰다. 조국 광복 후에도 식민지 종주국에 남아 있던 재일조선인은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와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고, 한국전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소박한 문제 틀에서 출발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지금까지 일본문학 속에 그려진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단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먼저,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는 『냉전문화론(冷戰文化論)』(双風舎, 2005.03)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의 냉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들은 냉전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냉전문화론’의 범주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와 문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즈 도시히코(伊豆利彦)가 훗타 요시에(堀田善衛)의 「광장의 고독(広場の孤独)」과 김달수의 「현해탄(玄海灘)」, 그리고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풍매화(風媒花)」를 대상으로 한 논고를 발표하고 있다.¹⁾ 국내 연구로는 한국전쟁을 그린 작품을 통해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고찰한 남상욱의 논고²⁾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훗타의 「광장의 고독」 외에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교코의 집(鏡子の家)」과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검은 피부의 문신(黒地の絵)」,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싸우는 오늘(戦いの今日)」과 같은 작품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전쟁을 그린 동시대의 대표적 작품인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고들³⁾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일본의 문학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재일조선인이 관여한 에스닉잡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1950년대에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에스닉잡지의 종류는 서클지까지 포함하면 50여 종에 달한다.⁴⁾ 본고는 이들 잡지 중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한 소설 및 희곡작품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동시대의 재일조선인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져온 한국전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의 인식에 대한 상대적 관점으로써 동시대에 발표된 일본문학도 시야에 넣어, 한국전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종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냉전을 고착시키게 된 한국전쟁에 대해 전장 밖의 세계인

- 1) 伊豆利彦(2002)「朝鮮戦争と日本文学—「記念碑」「玄海灘」「風媒花」」『社会文学』17号、日本社会文学会、pp.93-106
- 2) 남상욱(2015)「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비교한국학』23권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p.11-37
- 3) 예를 들어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2010)「훗타 요시에(堀田善衛)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한국어와 문화』7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와 김현희(2015)「일본 전후문학과 한국전쟁-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인문과학』57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연구원)가 이에 해당된다.
- 4) 논자는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 연구-1950년대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74집, 2017.08)를 통해 1950년대에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에스닉잡지의 종류와 이들 잡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재일조선인의 미디어 활동의 의미를 당시의 일본사회의 구도 속에서 고찰한 바가 있다.

일본열도(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시각을 분석해 보는 것은 냉전의 출구에서 입구가 된 지점으로 되돌아가 재검토해 본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1950년 전후의 일본사회와 재일조선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는 오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점령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식민지 종주국에서 광복을 맞이한 재일조선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해방 후 강제연행자들의 대부분은 귀환 길에 올랐으나,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는 정주 조선인의 경우, 귀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재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정부는 해외식민지 지역으로부터 귀환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강제징용과 징병 등으로 억류되었던 조선인의 귀환문제에는 방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본 점령을 위해 진주한 GHQ가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재류외국인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 재일조선인사회에서는 귀환문제 해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나, 1945년 8월말에는 무려 300여 개에 달하게 된다.⁵⁾ 10월 15일에 결성된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은 주로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들, 즉 좌파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조직을 확대·강화해 갔다. 그러나 반공사상이 강한 자들 중에는 조련의 활동에 반감을 가졌고,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이들 간에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1946년 10월에 결성되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이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이다. 한반도가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2개의 국가가 수립된 것처럼, 재일조선인사회에도 사상적 기반을 달리하는 양대 조직이 활동하게 된 것이다.

194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미국과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하던 소련이 1949년 8월에 원폭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발표했고, 10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한다. 이와 같이 국제공산권 세력이 강화되자, GHQ의 일본 점령 방침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GHQ는 일본을 극동의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으로 삼기 위해, 민주화와 비군사화라는 점령초기의 목표를 역행하며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고 재군비화⁶⁾하

5) 金贊汀(2004)『在日、激動の百年』朝日新聞社、p.94

6) GHQ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주둔의 미군을 한반도로 파병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치안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안보안청을 증원하도록 지시한다.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공백기간 동안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의 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중무장 군사조직이다.

는, 소위 ‘역코스’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반정부적·좌익적 인사를 색출했으며, 공산당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레드 퍼지(red purge)를 실시한다. 이러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는 재일조선인에게도 향했다. 재일조선인의 생활권 옹호 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인학교에 폐쇄령을 내렸으며, 이에 저항하는 교육투쟁을 강력하게 탄압했다. 1949년 9월에는 조련과 그 산하 단체인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에 대해 반점령군 행위와 폭력주의적 행위를 이유로 강제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했다.

당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지도를 받고 있던 일본공산당은 1950년 1월 코민포름에서 그들의 평화혁명론을 비판받게 된다.⁷⁾ 이로 인해 공산당 내부에도 소감파(주류파)와 국제파로 분열되고, 소감파는 반미투쟁을 우선시하고 군사방침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사흘 만에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6월 28일,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본부(민대)는 재일조선인으로 하여금 조국방위중앙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지시하고 각지에 조국방위위원회(조방위)와 그 밑에서 활동하는 조국방위대(조방대)를 두기로 결정한다. 조방위와 조방대의 임무는 일본대중과 연대하여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기지화대책을 분쇄하는 투쟁과 세계평화옹호투쟁에 재일조선인을 참가시키는 것에 있었다.

1951년 1월 9일, 한국전쟁 전부터 결성을 준비해 온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발족하면서 조련에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지도하게 된다. 일본공산당은 제5회 전국협의회(1950.10) 후 극좌모험주의적 방침에 의해 비합법적인 실력투쟁을 행사하게 되는데, 민전에 대해 각종 시위운동에 재일조선인 동원을 요구했고, 실제 1952년의 메이데이사건(메이데이事件)⁸⁾을 비롯한 대중투쟁에 민전 산하의 재일조선인이 다수 가담하게 된다. 미군기지 반대투쟁과 군수물자수송 저지투쟁 등의 비합법적인 투쟁의 중심에는 민전과 조방대가 있었고, 특히 조방대가 행동대로 활동했다.

이와 같이 민전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들이 조국방위를 위해 반미·반전·반기지투쟁을 전개하자, GHQ와 일본정부는 반점령행위를 한 재일조선인을 검거하여 강제송환할 준비를 한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10월에 보안대로, 1954년 7월에는 자위대로 개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 7) 일본공산당은 코민포름 비판으로 인해 소감파와 국제파로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코민포름 기관지 『항구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해』와 『북경인민일보』의 사실을 통한 이와사키 미노루(岩崎稔)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침략정책과 그 침략정책에 근거한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부르주아의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일본공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사가 산조(野坂參三)를 지명하면서 비판을 했다.(岩崎稔 『戰後日本革命の挫折』 『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① 40・50年代, 紀伊国屋書店, pp.124-125)
- 8) 민전 중앙은 1952년 메이데이를 기하여 조국방위와 제국주의자들의 탄압 분쇄, 재일조선인의 생활권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격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인민과의 단결을 굳건히 하는 메이데이 이투쟁에 동포의 참가를 촉구하는 실력투쟁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은 ‘제23회 메이데이 총결기 월간’ 설정하도록 지령을 내린다. 梁永厚(1994) 『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 未来社, pp.124-125

1950년 10월에 출입국관리청을 설치하고 나가사키현(長崎県)에 강제송환 대상자를 수용할 시설을 마련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과 관련된 법령으로 출입국관리령을 공포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리와 억압은 더한층 강화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들이 일본공산당의 지도하에 민전과 조방대를 중심으로 조국방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민단 측에서는 한국군에 지원할 청년들을 모집하여 재일한교자원군(在日韓僑自願軍)을 파병한다. 민단은 한국주일대표부와 GHQ와의 교섭을 통해 재일한교자원군 지도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자원군을 모집한다. 자원군은 미군 부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졌다. 한국에서 이들은 미군 혹은 한국군에 편입되어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평양공방전과 같은 제1선 전투에 참가하거나 지리산 빨치산부대 토벌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민단은 이외에도 적화(赤化)방지 모금운동,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위문품 모집운동 등을 전개했다.⁹⁾

한편, 한반도와 재일조선인사회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한국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점령으로부터 벗어나 주권 회복의 길로 나아간다. 강화조약은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성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려는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일본을 공산주의의 방벽으로 만들어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의 전략적 위치로서 일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전후처리의 중심과제인 배상금 지불문제에 대해 미국은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로 조문을 작성했고, 조약 당사국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대표와 중화민국(대만)을 배제시킨 49개국으로 하여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조인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인민의용군을 보낸 중국의 참가를 거부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일본은 북한과 남한 그 어느 쪽의 참가도 거부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전쟁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남북한과 대만의 참가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재일조선인과 재일대만인의 국적선택권과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¹⁰⁾ 이후 일본은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각각 국교회복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고, 한국과는 수차례의 회담을 거쳐

9) 梁永厚(1994)『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未来社, p.110

10) 이에 대해서는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가 1951년 3월 16일에 미국측에 제출한 ‘일본정부의 의견 및 요청서’ 내용에 근거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조선이 독립했을 때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한다. 그때 일본국적을 취득하거나 조선 혹은 한국적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시킨다.,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재일조선인에게는 귀화를 요청시킨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다. 귀화제도라면 정부가 한 사람 한사람의 신분·사상신조·개인재산 등을 소상히 조사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内海愛子(2009)「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東アジア」『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① 40・50年代, 紀伊国屋書店, p.144)

1965년 6월 22일에 양국이 조인한 한일협정으로 일단락된다.

이 시기 일본사회의 또 다른 일면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경기로 호경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서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GHQ점령 초기에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면서 노동조합의 문화부 등을 기반으로 직장서클이 다수 생겨나 활발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서 시작된 레드 퍼지로 주요 활동가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자, 문화운동은 침체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장을 쫓겨난 서클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조직한 지역서클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고, 이들의 활동이 반미·반전·평화 등 대항적 문화운동으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한국전쟁 시기라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일본사회의 분위기 속에 재일조선인 사이에도 서클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1950년대이다. 오사카에서는 1950년 3월, 이쿠노(生野)지구에서 이쿠노조선인협의회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조선인협의회를 결성해 나갔고, 각 지역 대표가 모여 오사카조선인단체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청년조직은 지역의 문화서클 대표들이 모여 1950년 4월 초순에 오사카조선청년문화서클협의회를 결성하여 대중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¹²⁾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서클단체가 생겨나 각종 문화활동과 서클지를 발행했으나, 현재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클지는 오사카조선시인집단에 의한 『진달래(チンダレ)』와 『가리온(カリオン)』 정도에 불과하다.¹³⁾

3.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 속의 ‘한국전쟁’

그렇다면 이러한 1950년대에 재일조선인은 한국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본장에서는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게재된 소설과 희곡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중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11) 전후 서클운동이 한국전쟁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에 관해서는 『‘서클시대’를 읽다-전후문화운동연구로의 초대(「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影書房, 2016.12)에 수록된 구로카와 이오리(黒川伊織)의 논고(「東アジアの「熱戦」とサークル運動—朝鮮戦争下の抵抗の経験」)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구로카와는 일본의 서클지를 대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12) 梁永厚(1994)『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未来社, p.106

13) 서클운동 연구자 구로카와 이오리(黒川伊織)는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 발행된 일본의 지역서클지의 경우 현존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黒川伊織(2016)「東アジアの「熱戦」とサークル運動—朝鮮戦争下の抵抗の経験」『「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影書房, p.46)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서클활동에 대한 연구와 서클지 발굴 작업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잡지뿐 아니라 창간 및 중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잡지도 포함하여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모두 조사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50여 종에 이르는 잡지의 종류에 비해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 수는 예상 외로 많지 않았다. 해방직후에 창간된 『민주조선(民主朝鮮)』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간되어 실제 전쟁 시기에는 침묵했던 것처럼, 1950년대에 창간된 잡지들 중 시나 소설 작품을 게재하는 문예지 혹은 종합잡지로 분류되는 잡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창작자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 중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총 14편이다. 그러나 동일한 작품이 잡지를 달리하며 중복 게재된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13편에 불과하다.

<표1>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1950년대 작품

분류	작자명	작품명	게재지명	권호(발행년월)
희곡	張羅	평양 해방(平壤解放)	朝鮮評論	2호(1952.02)
소설	周玉銘	출국 전(出國の前)	朝鮮評論	3호(1952.05)
소설	李北鳴	악마(惡魔)	朝鮮評論	4호(1952.07)
소설	朴贊謨(韓寬碩 訳)	수류탄(手榴彈)	朝鮮評論	5호(1952.07)
소설	崔明珮(金民 訳)	운전수 길보의 전투기 (運轉手キルボの戦斗記)	朝鮮評論	7호(1953.04)
소설	金南天	꿈	군중	3호(1952.01)
소설	朴贊謨	수류탄(手榴彈)	군중	3호(1952.01)
소설	박금소	소년친위대	군중	5호(1952.10)
희곡	정태유(鄭泰裕)	섬사람들	군중	5호(1952.10)
소설	빠리(박혁 역)	사과	조선문학	2호(1954.05)
소설	黃建(李贊義 訳)	행복(幸福)	新しい朝鮮	7호(1955.05)
소설	김민	개이지 않는 하늘	조선문예	4호(1956.12)
소설	安榮二	피 묻은 수첩(血ぬられた手帳)	大村文学	1호(1957.07)
희곡	柳致眞 (金坡禹 訳)	자매(姉と妹)	白葉	4호(1958.01·02)- 8호(1958.11)

1951년 12월에 창간하여 1954년 8월에 종간한 『조선평론』¹⁴⁾은 총 9권의 잡지를 발행하고

14) 『조선평론(朝鮮評論)』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에 오사카조선인문화협회가 창간한 잡지이다. 조련의 강제해산 후 후속단체로 민전(재일본조선민주통일전선)이 1951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이때 오사카지역에서는 10월말에 문화단체의 통일기관으로 오사카조선인문화협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의 기관지 『조선평론』이 12월에 창간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재일조선인 잡지 중 종합문화지로서 한국전쟁기에 발행된 것은 『조선평론』이 유일하다.

있는데, 그 중 5권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및 희곡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조선평론』에 실린 5편은 재일조선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모두 번역물이다. 「평양 해방」과 「출국 전」은 중국인의 작품이고, 이북명의 「악마」, 박찬모의 「수류탄」, 최명익의 「운전수 길보의 전투기」는 북한 작가의 작품이다.¹⁵⁾

『조선평론』이 중단되고 후속지적 성격을 띤 『새 조선』이 창간되는데, 7호에 발표된 「행복」 역시 북한 작가 황건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고, 재일조선문학회¹⁶⁾의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게재된 「사과」의 경우, 역시 작자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중국인 작가로 추정되는 작품을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

한글잡지 『군중』은 1951년 11월경에 창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조선문학회의 기관지이다. 여기에는 북한 작가 김남천의 「꿀」, 박찬모의 「수류탄」, 박금소의 「소년친위대」 총 3편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을 담고 있으나, 박찬모의 「수류탄」은 『조선평론』에서도 한관석이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에 의한 창작물은 「소년친위대」, 「섬사람들」, 「개이지 않는 하늘」, 「피 묻은 수첩」 4작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1 중국인 작가의 번역 작품

먼저, 중국인의 작품이 번역 게재된 경우를 보면, 「평양 해방」은 1막으로 구성된 희곡으로 1950년 12월 6일, 평양 남쪽의 한 촌락을 무대로 하고 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평양까지 함락되자,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여 평양이 다시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를 그린 작품이다. 절정을 이루는 장면은 14살 소년과 그 할아버지가 자신들이 숨겨준 부상당한 유격대원과 함께 맞이하는 ‘평양 해방’의 순간이다. 평양이 해방되었다는 함성과 함께 등장한 소년의 형(인민군)이 “우리들의 친구인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고 나서 김일성 장군의 지휘 하에 전면적 반격을 전개해서 적 2만3천명을 전멸”¹⁷⁾했다고 보고한다. 「평양

15) 이북명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카프(KAPE: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 활동, 광복 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과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을 지닌 인물이고, 박찬모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서기였으며, 평안남도 출신의 최명익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을 지닌 인물이다.

16) 재일조선문학회는 1948년 1월 17일, 재일본조선문학자회(김달수, 김원기, 장두식, 이은직, 박원준, 허남기, 강현철, 윤자원 등이 1947년 2월에 결성)가 조련 산하에서 예술관련 활동을 해오던 여러 단체들을 규합하면서 재일조선문학회로 개칭하면서 발족한 단체이다. 재일조선문학회의 주요 특징으로는 한글잡지 발행에 주력해 왔다는 점인데, 1940년대의 『봉화』를 비롯하여, 1950년대에는 『군중』, 『조선문학』, 『조선문예』를, 1960년대에는 『조선문예』, 『문학예술(文学芸術)』, 『문예활동(文藝活動)』, 『조선문예(朝鮮文藝)』, 『효고문예통신(兵庫文藝通信)』, 『군중문예』 등의 한글잡지를 발행했다.

17) 張羅(1952)「平壤解放(1幕)」『朝鮮評論』(2)、朝鮮人文化協會、p.100

해방은 자신도 인민군이 되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소년, 부상을 입었지만 나가서 싸우겠다는 유격대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피의 대가를 돌려주자는 할아버지, 그들 뒤로 ‘인민행진곡’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작품이다.

「출국 전」에는 ‘지원군의 외정작전 1주년을 기념하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1951년 10월 하순, 소설은 화자인 ‘나’가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해방’시킨 지역을 찾아 당시 전투 장소를 둘러보고, 옛 동지를 만날 생각으로 안동(安東)¹⁸⁾역에서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3년 전 항일전쟁에서 함께였던 친구는 현재 중국노동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나’와 친구의 시선은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신의주로 향한다. 적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가옥이 불타고,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옛 동지에게 함께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가서 싸우자고 한다. 소설의 부제목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1주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설의 마지막에서 지원군으로 조선에 간 화자는 “우리들은 조선인민을 원조하고, 조국을 방위하고, 세계평화를 방위했다.”¹⁹⁾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문학』 2호에 발표된 「사과」는 중공군의 방공호를 찾아와 사과를 건네주는 할머니의 사연을 중국병사 마동무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1950년 11월 장진호전투 때 함흥부근의 할머니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는 3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연을 들려준다.²⁰⁾ 할머니의 과수원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지주의 것이었으나, 해방 후에 집과 토지를 분배받았고 그때 집 앞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한다. 1950년 봄, 처음으로 꽃을 피운 사과나무를 보며 기뻐하던 막내아들은 인민군에 입대했고, 할머니는 그해에 수확한 사과를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 보자기에 싸서 챙겨두고 있다고 한다. 소설의 마지막은 할머니의 사과를 받은 병사들이 중국과 조선은 “두 개의 팔과 같은 것”²¹⁾으로 조선을 위해, 할머니를 위해 ‘미국 살인마’를 무찌르기 위해 부상을 이겨내며 전선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북한군과 중공군을 응원하는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는 작품이다.

중국인 작가에 의한 상기의 3작품은 프로파간다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 한국전쟁에 대한

18) 안동은 현재의 단동(丹東)으로 압록강 너머로 북한의 신의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교통의 요지이다. 소설 속에서는 “안동 시가지가 압록강 서쪽 해안으로 굽은 한일자(一)처럼 강을 따라 이어져 있다. 그리고 눈을 동쪽으로 돌리자 강 맞은편은 이웃나라 조선 거리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周玉銘(1952)「出国の前」『朝鮮評論』(3)、朝鮮人文化協會、p.93

19) 周玉銘(1952)「出国の前」『朝鮮評論』(3)、朝鮮人文化協會、p.97

20) 할머니가 보여준 세 장의 사진은 남편과 두 아들의 것이었다. 남편은 10년 전 일본군에게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었고, 19살에 일본군에 징병되어 ‘만주국’으로 간 아들은 곧 도망쳐서 항일의용군을 거쳐 해방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했으며, 막내아들 박진원은 현재 인민군에 입대해 있다고 한다.

21) 빠리/백역 역(1954)「사과」『조선문학』(1), 해방신문사, p.25

시각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한국전쟁을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쟁이 아닌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전하기보다 조선인과 접촉하는 중공군을 통해 중국과 조선(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북한 작가의 작품

북한 작가의 작품은 총 5편으로, 김남천의 「꿀」은 앞에서 소개한 「사과」와 마찬가지로 팔순에 가까운 할머니와의 인연에 감사해 하는 한 인민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머니의 아들은 1946년 10월 항쟁 때 숨졌고, 손자는 지리산 유격대원으로 싸우고 있다. 어느 날 인민군 병사가 부상을 당해 할머니 집 앞에서 쓰러지는데 할머니는 그에게 꿀물을 타 주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자를 위해 꿀과 미숫가루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할머니와 마을 남로당 당원들의 도움으로 몸을 회복한 병사는 낙동강전선에 투입되었고, 또다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 중이다. 소설은 이때 화자가 그 부상병에게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꿀」의 공간적 배경은 경남 거창이다. 거창은 전쟁 전부터 좌익세력의 활동지였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는 남조선노동당의 무장조직이 활동하던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좌익과 우익의 충돌이 가장 격심했던 곳으로 1951년 2월에는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한국군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한 곳이다. 소설에는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시사는 없고, 할머니와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낙동강전선에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병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군중』3호(1952.01)에 게재된 또 한편의 소설은 박찬모의 「수류탄」으로, 이 작품은 『조선평론』5호(1952.09)에도 한관선의 일본어 번역본이 실려 있다. 「수류탄」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해 오던 시기,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서대문로터리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는 리영우의 이야기이다. 종원동에 위치한 영우의 집이 소이탄 폭격으로 불타버린 날, 아들에게 전해 줄 도시락을 들고 나섰다가 공장 근처에서 어머니 역시 폭격을 맞아 숨진다. 이튿날 어머니의 유품으로 도시락을 전해 받은 영우는 통보리를 삶아 꼭꼭 눌러 담은 밥 한 귀통이에 엉겨 붙은 고추장을 보고, 어머니의 피를 떠올리며 특별사위대에 지원했다. 바리케이드 앞으로 돌진해 오는 적의 탱크를 향해 영우는 분배받은 수류탄 2개를 던지지만 불발로 끝나자, 이번에는 수제수류탄 2개에 불을 붙여 탱크를 향해 돌진한다. 베개를 베고 자라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의식을 잃고 마는 영우의 모습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최명익(崔明翊)의 「운전수 길보의 전투기(運轉手キルボの戰鬥記)」도 수류탄으로 미군 트럭을 폭파시킨 한 중년 병사의 이야기이다. 20년 넘게 운전만 해 온 길보는 식량과 방공호 구축용 목재 등의 보급품을 전선으로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하고 있지만, 2개월 전 어머니가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숨진 후, 어린 아들에게 할머니의 복수를 해준 자랑스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최전선에 와서도 운전대만 잡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할뿐이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밤 부분대장과 함께 목재를 운반하던 길보는 미군 트럭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미군 트럭에 수류탄을 던져 마침내 “전투적인 운전을 해서’ 미국 병사놈을 몇 명쯤”²²⁾ 해치우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이북명(李北鳴)의 「악마(惡魔)」는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군이 후퇴를 하던 시기의 강원도를 배경으로 노동당 활동을 한 자식과 며느리, 갓 태어난 손자까지 모두 잃은 박검지의 이야기이다. 인민위원인 큰 아들, 농민부위원장인 작은 아들, 부인동맹위원장인 며느리를 둔 박검지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어느 날 마을의 치안대장 허만세와 국방군 소위 구멍호가 커크 하사관과 일본인 요시다를 동반하고 나타난다. 허만세는 치안대장에 취임한 후로 연합군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쌀, 가축들을 탈취하고 치안대장 교체비 명목으로 돈을 거둬가기 일쑤인 인물이다. 이들은 아들의 행적을 캐묻고, 집안을 뒤져 며느리의 금반지와 닭을 잡아가면서 닭레품이라며 큰 상자 하나를 건넨다. 그 안에는 큰 아들의 잘린 목이 들어있었고, 며느리가 갓난아기와 함께 숨어있던 짚더미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다. 이후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극’”으로 “박검지의 코에는 철사를 꿰어 넣고, 어깨에는 모시처럼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며느리와 큰 아들의 목이 묶여져 있고, 등에는 손자의 새빨간 시신이 얹혀 있으며, 엉덩이에는 ‘공산당이 죽는 모양은 이런 것이다’라고 먹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어, 노인이 기어가자 그 종이드 함께 나아갔다.”²³⁾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사건이 있는 후 박검지는 미치광이처럼 행세하며 ‘악마’들의 정보를 캐내어 병영과 치안대본부를 습격하고 빨치산과 함께 산길로 향하는 것으로 끝난다.

황건의 「행복」(1953)²⁴⁾은 미군의 폭격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교사 서여주가 인민군 병원부대에서 열열전사로 거듭나는 이야기이다. 서여주는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져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현재의 모든 고난은 ‘행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행복」은 ‘조선인민군 창설 5주년 기념 문학예술상’ 수상작인 만큼, 주인공을

22) 崔明翊/金民 訳(1953)「運轉手キルボの戰鬥記」『朝鮮評論』(7)、五月書房、p.79

23) 李北鳴(1952)「惡魔」『朝鮮評論』(4)、朝鮮人文化協會、p.78

24) 「행복」은 1954년에 『해방신문(解放新聞)』과 『신여성(新女性)』에 연재된 바 있는 작품으로 『새 조선』7호(1955.05)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요약본을 게재하고 있어 오히려 프로파간다 성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통해 북한군의 애국적인 영웅주의를 찬미하고 있는 프로파간다 작품이다.

북한 작가의 작품의 경우, 마지막으로 소개한 「행복」을 제외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 대한 묘사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 일반 주민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불행을 그리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인민군에 입대하거나, 인민군을 적극 돕거나, 목숨을 불사르며 적진에 뛰어드는 등장인물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상기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에 대한 신념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가족이 누구에게 살해당했는가, 즉 가족을 잃게 만든 쪽이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군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3.3 재일조선인 창작물

마지막으로 번역물이 아닌 재일조선인에 의한 창작으로 보이는 작품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박금소의 「소년친위대」는 1950년 10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작자와 동명인 금소라는 여자 아이의 시선으로 소년친위대에 들어가게 된 배경과 이후 그곳에서의 활동 내용을 보고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와 3명의 오빠가 모두 인민군이 된 후, 갑자기 어머니가 경찰서에 끌려가고 어머니를 만나러 경찰서에 간 언니마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옴으로써 ‘나’에게 남은 가족은 어린 동생들뿐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나’에게 신입교사는 등교를 강요하고, 가지못해 등교한 학교에서는 “인민공화국은 나쁜 정부다. 미군이 조선 사람의 제일 큰 은인”이라고 가르치며, ‘나’는 “이승만 장교군복을 입고 있는 교장”에게 불려가서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²⁵⁾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한 ‘나’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친구들과 소년친위대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된다. 어린이의 시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 저항한 자신의 활동을 경어체로 서술하고 있고, 페이지마다 그림을 삽입하고 있는 이 작품은 프로파간다 아동소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군중』 5호에는 「소년친위대」와 함께 정태유의 희곡 「섬사람들」이 실려 있다. 시대 설정은 1952년 5월,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인접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단막극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많은 포로가 발생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1950년 11월에 만들어진 곳이다. 「섬사람들」은 수용소 건물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제76수용소와의 무전 통신 결과를 보고하는 용순과 제국의 대화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수용소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작대원으로, 수용소에 포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침투한 특별공

25) 박금소(1952) 「少年親衛隊」 『군중』(5), 재일조선인문학회, p.35

작대 대원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섬사람들」은 실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하고 있다. 1952년 2월에 포로송환 심사에 항거한 폭동이 발생했고, 이어서 5월 7일에는 수용소 소장 돛드준장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²⁶⁾ 「섬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은 포로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사실을 그동안 공작대를 도왔던 섬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민의 「개이지 않는 하늘」의 무대는 일본이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던 박영환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기도 하는 등 이승만 통치에 반대하다가 3개월 전에 일본으로 밀항해 온 인물이다. 현재 사진만 바꾼 친구의 외국인등록증과 취로표를 가지고 직업안정소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툰 일본어 실력으로 인해 밀항자란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대기소에서는 책만 읽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쭈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이 조국 해방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이렇게 로동관에 자기를 감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인민군대는 부산 근처에까지 밀려왔는데”²⁷⁾라 생각하는 영환의 마음은 ‘개이지 않는 하늘’과도 같다. 임금을 받고 거리로 나온 영환은 장맛비 속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찬 거리의 모습에 위화감을 느낀다. 그런데 비를 피해 들어간 서점에서 영환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인영자를 만나게 된다. 영자는 공산군이 부산까지 남진해 오자 2주 전에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왔으며, 급하게 비행기로 오는 바람에 미국에서 사온 동생의 자전거만 겨우 싣고 왔다고 투덜댄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영자의 아버지 소식을 묻자 일본에서 미군 제8군²⁸⁾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며 영자는 영환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말을 하고는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검정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다. 그 모습을 보며 영환은 “같이 일본에 왔어도 오는 데는 여러 길이 있었구나”²⁹⁾라는 생각을 하며, 결국 자신도 도피자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곧 일본에서도 싸울 사람들이 눈앞에 있지 않은가 라며 도피자임을 부정해 보지만, 정작 영자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비 내리는 거리를 다시 걷기 시작한다.

26)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홈페이지 「포로수용소 역사」 참조

http://www.pow.or.kr/_sub06/sub06_01c.html 검색일자: 2018.06.10

27) 김민(1956)「개이지 않는 하늘」『조선문예』(4), 재일본조선문학회, p.12

28) 상계서, p.12

29) 미군 제8군은 민단의 중앙본부가 한국주일대표부와 GHQ가 교섭하여 각지의 청년과 학생들에게 한국전쟁 참전 지원군을 받아 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다.(梁永厚(1994)『戰後·大阪の朝鮮人運動』未來社, p.110)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저항하다 밀항한 영환에게 재일조선인 청년들을 재일한교자원군으로 파병시키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자의 아버지, 미국 것만 좋아하는 영자 가족과 같은 존재야말로 조국이 아닌 일본에서 싸워야 할 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영이의 「피 묻은 수첩」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오무라조 선문학회의 기관지 『오무라문학』 창간호(1957.07)에 발표된 소설이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작품임에는 틀림없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남녀의 사랑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 상공이 미군 폭격기로 뒤덮이고, 미군의 기계보병대와 전차부대의 압도적인 공세에 북한군이 후퇴한 후, 신준식은 서울시 민주청년동맹(민청)에 배치되어 제3소대의 소대장을 임명받았다. 그런데 준식은 그곳에서 뜻밖에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이해란을 만나게 된다. 함께 선전공작대로 활동하면서 동지가 아닌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준식은 해란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전선이 점차 악화되면서 준식은 무장부대로 편성되고, 해란은 공작활동 도중에 폭격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녀가 죽은 후 간호사가 건넨 해란의 피로 묻든 작은 수첩에는, 자신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용감했고, “독립조선을 지키기 위해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죽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몫까지 합쳐서 훌륭히 싸워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준식은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인류의 적 살인마 미국”³⁰⁾을 쳐부수겠다고 맹세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일조선인의 창작물 또한 중국과 북한 작가의 작품들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한국계 혹은 반공계 잡지의 경우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담고 있는 잡지는 『백엽(白葉)』이 유일하다. 백엽동인회에 의해 1957년 10월에 창간된 월간 종합문화지 『백엽』은 4호(1958.01·02)부터 8호(1958.11)에 걸쳐 한국의 극예술작가 유치진의 희곡 「자매」를 연재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시기 피난민들이 집주해 있는 부산을 무대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의 전쟁 체험을 통한 반공의식과 사회비판적 성격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중심인물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삶을 살아온 성희와 동생 옥경, 비관주의 시인 최열이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성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것은 중공군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이후 양공주가 되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온 성희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가 최열이었지만, 곧 여동생의 최열에 대한 감정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작품은 세 사람의 애정문제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지만, 시간적인 배경이 한국전쟁인 만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참혹성과 파괴성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잡지들도 재일조선인의 창작물보다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재일본대한청년단(한청) 중앙총본부 기관지로 1958년 12월에 창간된

30) 安榮二(1957)「血ぬられた手帳」『大村文学』(1)、大村朝鮮文学会、p.54

『약인(若人)』(韓靑時報社)의 경우, 한국전쟁과는 관련이 없으나 4호(1959.07)에서 한국 소설가 곽하신(郭夏信)의 「아들」을, 그리고 『현해(玄海)』(玄海社)는 창간호(1960.01)에서 1959년에 동인 문학상을 수상한 손창섭(孫昌涉)의 「잉여인간」(『문학계』1958.09)을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백엽』은 비총련계 잡지라고는 하지만, 편집 실무를 맡은 김민은 『조선평론』, 『문학보(文學報)』, 『조선문학』과 『조선문예』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그리고 『백엽』창간호에는 허남기(許南麟)의 시가 실려 있다. 『민주조선』에서 시작하여 재일조선인이 관여한 대부분의 잡지에서 활동한 허남기는 비총련계 잡지에도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민전이 해산되고 1955년 5월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혹은 조총련)가 결성될 때까지 이어진다.

4. 동시대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는 한반도가 38도선으로 분단된 것을 일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³¹⁾ 만약,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7월중에 수락했다면 원폭이 투하되는 일도 없었고, 남북분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비극은 결국 식민지 지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한국전쟁으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후에 표출된 것으로 실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작가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본장에서는 1950년대에 발표된 소설 중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그 실상을 고찰해 본다.³²⁾

먼저 한국전쟁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는 훗타 요시에(堀田善衛)의 「광장의 고독(広場の孤独)」(『中央公論文藝特集』1951.09)과 시모무라 치아키(下村千秋)의 「통한가도(痛恨街道)」(『小説新潮』1951.09)를 들 수 있다. 1951년도 하반기(26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광장의 고독」은 신문사 섭외부에서 임시직으로 외신을 번역하고 있는 기가키(木垣)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외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기가키는 한국전쟁을 보도하는 외신 속의 ‘공산군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적 기동부대’로 번역하는 하라구치(原口)의 태도에 “적? 적이란 무엇인가, 북한공산군은 일본의 적인가?”³³⁾라는 의문을 가진다.

31) 井上ひさし、小森陽一 編(2004)『座談会 昭和文学史』第5巻、集英社、pp.267-269 참조

32) 본장에서 다루게 될 일본인 작가의 작품은 6편이다. 물론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한 일본의 문학작품은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실린 작품에 대한 참조 축으로 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1950년대로 시대를 한정했으며, 여기서는 일본문예지에 발표된 재일조선인의 작품도 배제했다. 또한 이들 6편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한국전쟁이란 모티브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이 장면에서는 패전하기까지 일본의 적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적인 공산군을 자연스레 일본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이어서 기가키는 자신이 번역하던 문장에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은 이미 무언가의 Commitment를 해 버린 게 되는 것은 아닌가”³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자신, 한국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지만, 국제정세를 번역하는 일 자체가 결국 커미트(commit)하고 있다는 자각이고, 기가키는 실제 일본사회가 한국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된다. 그는 국민당계 중국인 기자가 특수경기에 흥청대며 술을 마시는 요코하마(横浜)의 노동자들을 보며 역시 일본인은 전쟁을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와사키(川崎)의 중공업 지대에서 아직 전쟁의 상흔이 생생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전쟁을 위해 분주히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고독」은 동아시아의 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레드 퍼지가 본격화되고, 재군비화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흥으로 술렁이는 점령기의 일본사회를 표상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지식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모무라의 「통한가도」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고(愛吾)’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를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의 이웃에 사는 아이고는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젊은 여자 오토미(おとみ)와 농가의 헛간을 개조해서 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패전국 일본’을 버리고 ‘독립국이 된 한국’으로 건너갔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 만인 1950년 7월 하순에 불쑥 돌아온 것이다. 아이고는 북한군이 ‘메뚜기 대군’처럼 천지를 새까맣게 물들이며 밀고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밀항선을 타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메뚜기 대군’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까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일본인들은 “모두가 강 건너는 커녕, 바다 건너 불”³⁵⁾처럼 보고 있다며 탄식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난 10월 중순, 아이고는 한국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을 넘어 계속 북상해서 압록강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시 사라졌다. 아이고가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어 북한군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12월 중순쯤에는 돌아올 줄 알았던 아이고가 1951년 1월 상순, 마치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짊어지고 온 사람처럼 한 쪽 눈도 잃고, 반신불수가 되어 거지같은 행색을 하고 돌아왔다. 이후 아이고는 중공군이 ‘인간 쓰나미’처럼 일본으로 몰려올

33) 堀田善衛(1951)「広場の孤独」*인용은 『昭和文学全集 第17巻』(小学館1989.07)、p.763

34) 상계서, p.764

35) 下村千秋(1951)「痛恨街道」*인용은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 2012.06)、p.399

것을 두려워하며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가기도 한다. ‘나’는 딸에게 뉴욕 타임스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기사 속에 나오는 ‘Heart Break Highway’란 단어, “서울에서 남한으로 통하는 가도”를 가리키는 “‘실신대도(失神大道)’라든가 ‘통한가도(痛恨街道)’”란 의미의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다.

몇 번인가 후퇴와 반격을 되풀이하고, 여전히 멈출 곳을 모르는 그 가도에는, 얼마만큼의 출혈을 본 것인가, 정말로 그 이름이 생겨난 이유일 것이다, 라고 나도 감회가 깊었지만, 그 눈에 비친 것은 연합군도 중공군도 아니고, 역시 그 가도를 생사를 걸고 도주해 온 아이고의 모습이었다.³⁶⁾

그 이름도 ‘조선인’의 비탄의 외침인 ‘아이고’와 같은 음을 가진 혼혈아 아이고의 운명은 동족간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 겹쳐진다. ‘통한가도’를 그리고 현해탄을 목숨을 걸고 오고가지만, 결국 아이고가 안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³⁷⁾ 한국전쟁의 참상과 일본이 한국전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프롤레타리아작가로 알려진 사타 이네코(佐多稲子)의 「바퀴 소리(車輪の音)」(『文学界』 1954.03)는 신쥬쿠(新宿)를 출발한 중앙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살고 있는 ‘나’가 마치 지진과도 같은 흔들림과 굉음을 내며 지나는 열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떨칠 수 없는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 그 기억은 한국전쟁 시기로 돌아간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중앙선의 역 홈 등지에서 낮 동안에도 군수품이 쌓인 화물열차를 자주 보았다. 은색의 거대한 통이 판자로 포장되어 몇 개씩이나 쌓여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뉴스영화로 보는 폭격의, 비행기에서 수없이 투하되는 폭탄을 닮았다. 어떤 때는 엉망으로 파손된 지프이고, 날개가 흰 비행기이고, 철 조각처럼 된 무언가의 파편 더미였다. 그것은 반대로 수리된 지프나 탱크이기도 했다.³⁸⁾

오랜 실직 끝에 현재의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된 사촌동생 스즈키(鈴木)는 자신의 직업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생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황 보도 기사를 볼 때마다 모순을 느끼기도 하며,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36) 상계서, pp.425-426

37) 아이고가 생사를 걸고 한국을 도망쳐 일본으로 건너오지만, 그의 아내 오토미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어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헛간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는가 하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대립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38) 佐多稲子(1954)「車輪の音」 *인용은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 2012.06), p.452

실직했을 때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때문에 스즈키는 정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결국 뇌일혈로 쓰러져 죽고 만다.

이 소설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광장의 고독」과 유사하다. 전황에 따라 스즈키가 일하는 공장에도 그 여파는 있었지만, 휴전교섭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화물열차는 여전히 무기를 운반했다. 파손된 장갑차에 무수히 박힌 탄환을 보며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며 몸서리치는 노동자들이지만, 무기를 해체하고 제조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기를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와 해고를 두려워하며 정직원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망한 스즈키, 이 2가지 요소는 군수산업으로 호경기를 누리던 일본사회의 단면을 통해 「광장의 고독」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당시의 일본사회를 표상하고 있다.

다나카 고미마사(田中小実昌)의 「상륙(上陸)」(『新潮』1957.12)은 한국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를 배경으로 직업안정소의 알선으로 도쿄만의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배를 탄 노무자 7명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7명은 사흘 전에 고베(神戸)를 떠난 배가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하다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행선지를 알 수 없어 불안해 한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행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된다. 그러던 중 배는 어느 부두의 안벽에 멈춰 섰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고 같은 건물과 건물 벽에 적힌 알 수 없는 글자뿐이었다. 순간 그들은 부산에 도착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곧 서치라이트가 비추지고 무장한 일본인 경비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배가 멈춘 곳이 모지항(門司港)임을 알게 된다. 그러자 한국으로 갈 것을 두려워한 7명은 탈출을 시도한다. 밧줄을 타고 배에서 내리던 그들은 결국 “한국행 일본인 노무자는 절대로 배에서 내려선 안 된다는 명령”³⁹⁾을 받았으며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만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인 노무자가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재한 일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경험한 노무자들이 한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까지 시도하는 모습으로부터는 전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다.

마쓰모토 세이쵸(松本清張)의 「검은 피부의 문신(黒地の絵)」(『新潮』1958.03~04)은 1950년 7월 11일, 미군 주둔지인 고쿠라시(小倉市) 죠노(城野) 보급기지에서 250명의 흑인병이 탈주하여 주변 민가에 침입, 파괴와 약탈, 상해와 강간 등을 자행한 사건을 제재로, 6명의 흑인병이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를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마에노 류키치(前野留吉)의 파괴된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에서는 류키치를 시점인물로 하여

39) 田中小実昌(1957)「上陸」*인용은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2012.06)、p.443

미군들이 집결했다가 다시 빠져나가고를 반복하는 조노 캠프와 주변 민가를 배경으로 실재한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7월 10일 흑인부대가 이동해 왔을 때 고쿠라 일대는 기온마쓰리(祇園祭)를 앞두고 연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등 축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의 전황은 북한군이 서부경남과 부산 북부지역에까지 압박을 가해 왔던 시기로, 어둡기만 한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던 흑인병들이 축제의 북소리에 자극을 받아 주변 민가를 습격한 것이다. 2장은 조노 캠프 내의 한 건물로 이동한다. 그곳은 한국에서 냉동보관되어 옮겨진 미군의 사체를 처리하는 사체처리소로 80명 정도의 미국인과 동수의 일본인이 사체의 대군과 싸우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도 38도선을 경계로 교착상태에 들어가 휴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던 어느 날, 해부실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부패를 막기 위해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는 군의가 메스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해부실 한 구석에서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면서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인이 포착된다. 그 앞에는 팔이 없는 흑인병의 몸통, 그리고 그 몸통에는 배꼽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붉은 색으로 문신한 흑인병의 사체가 놓여있다. 그가 바로 류키치였던 것이다. 1950년 7월의 사건 후 아내와 이혼하고 직업안정소의 모집광고를 통해 사체처리 일을 하고 있던 류키치의 삶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6명의 흑인병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 주검이 되어 돌아온 흑인병에 대해 류키치는 그 사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복수를 한 것이다.

「검은 피부의 문신」은 한국전쟁을 시간적 배경으로 흑인병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류키치란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장의 서두가 각종 외신들이 전하는 한국전쟁 상황을 일자별로 기록한 기사들로 시작되고 있고, 그 기사들은 다름 아닌 전황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한반도로 파견되는 미군의 움직임을 전하는 뉴스들로 채워져 있다. 즉, 「검은 피부의 문신」은 한국전쟁을 미군 기지와 미군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모리오(北杜夫)의 「부표(浮標)」(『文藝首都』1958.09)는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과는 달리 한국을 무대로 한국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일본이 결코 한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전쟁에 관여했음을 한국전쟁에 투입된 8명의 일본인의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1951년 초여름 김포공항에 미군 복장을 한 일본인 8명이 내린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나’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육해군의 장교 출신자들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일은 공산군 전투기가 그들 기지와 교신하는 무선전화를 도청하는 것이었다. ‘나’=고야마(小山)는 자신의 임무가 결국 “사람 죽이는 것을 돕고 있는”⁴⁰⁾ 것이라는 자각은

40) 北杜夫(1958)「浮標」*인용은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2012.06)、p.154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죄악감에 시달리는 일도 없고,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물이다. 소설은 고야마의 시선으로 관찰되는 8명의 전쟁 속의 일상, 한국전쟁의 추이와 함께 8명의 수행한 임무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수신 기지를 3차례 이동하면서 고야마가 목격한 것은 폭파된 비행기 잔해, 금속 파편 더미, 파괴된 가옥과 황폐화된 농지, 지치고 고달픈 표정의 피난민들, 처리되지 않은 유골들이었다. 폭격소리가 끊이지 않는 속에서 철저하게 파괴된 현장을 보면서 고야마가 떠올리는 것은 역시 그가 경험한 일본의 전쟁이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행인 사쿠라이(桜井)에게 자신을 ‘하리는 대로 하는 주의’라고 소개한 것처럼 고야마는 어떠한 신념도 희망도 없이 ‘부표’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는 인물 혹은 “가령 전장에 있어도, 억압된 평화 속에 있어도, 자칫하면 나는 역시 무감각에 빠져버릴 지도 모⁴¹⁾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세계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는 고야마와 같은 인물 또한 한국전쟁에 관여한 일본인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작가는 ‘무감각’이라는 단어로 고야마와 같은 형태의 관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1950년대에 발표된 6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중 「광장의 고독」과 「통한가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고, 나머지 4편은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표된 작품이다. 「통한가도」와 「부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고가며 피폐해져가는 조선인 혼혈아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GHQ로부터 의뢰받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의 시각을 통해 각각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특수호경을 맞이한 일본사회의 일면을 조명해내고 있는 「광장의 고독」, 「바퀴 소리」, 「상륙」과 같은 작품과 흑인부대의 집단탈주사건을 제재로 한 「검은 피부의 문신」은 한국전쟁보다 미국의 병참기지로서의 일본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반도에서 발생한 비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양한 형태로 그려내고 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역사적인 성찰의 식은 발견하기 어렵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1950년대에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에스닉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은 문학적 소재로서의 한국전쟁을 어떤 식으로 그려내고 있는가에 관해 고찰했다. 1950년대

41) 北杜夫(1958)「浮標」*인용은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 2012.06), p.201

에 발행된 총 50여종의 잡지 중, 창간과 중간 정보가 불명확한 잡지도 포함하여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잡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은 총 14편(그중 2편은 동일 작품)이었다. 이 14편의 작품은 모두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하기 전에 발표된 것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전쟁이 가장 격심했던 1950년과 1951년에 편중되어 있었다. 공간적인 배경은 한반도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무대로 한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 잡지는 재일조선인에 의한 창작보다 중국과 북한 작가의 작품 혹은 남한 작가의 작품을 번역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번역물을 제외하면 재일조선인이 창작한 작품은 4편에 불과하다. 중국과 북한의 작품의 경우, 한국전쟁에서의 적군은 미국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었고, 한국전쟁을 그리면서도 한국 군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유치환의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북한군(중공군)과 빨치산의 활동에 협조적인 인물과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인물의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복 이후부터 재일조선인의 대중문화활동을 선도한 이들의 대부분이 북한의 체제에 동조한 자들이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론을 통해서는 14편의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발표된 작품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작품이 프로파간다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을 국제정세 혹은 국제관계의 구도 속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재일조선인 잡지에 게재된 작품들은 한국전쟁이 문학적 소재로 사용되었다기보다 한국전쟁 그 자체가 중심테마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참혹한 상황을 고발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재일조선인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본열도라는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인 거리는 제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전개되던 시기 재일조선인사회도 동일한 구조로 대립해 있었고, 한국전쟁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인 작품의 경우, 미군에 의한 점령이라는 상황 하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급변해 가는 사회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전쟁과의 거리감은 자연스레 확보되었겠지만, 작품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이 한국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적’에 대한 의식에 나타나는 특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잡지에 게재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있어 적대의식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어느 쪽에 의해 희생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었다.

네 번째는 대부분이 좌익성향의 잡지에 게재된 작품인 만큼 ‘적’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겠지만, 작품 속에서 ‘적’은 미국과 미군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북명의 「악마」의 경우 한국전쟁을 식민지시대의 지배구조가 해방 후에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란 존재가 새로운 ‘악마’로 등장하여 선량한 주민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 작가의 작품의 경우, 기타 모리오의 「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었고,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발표된 작품들과는 달리 한국전쟁 그 자체가 소설의 테마가 되고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인 작가의 6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무대로 한 「부표」라는 작품도 전황이 작품 곳곳에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전쟁은 소설의 배경으로 물러나 있고, 모든 것에 ‘무감각’한 주인공을 통해 소설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GHQ의 점령에 익숙해진 냉소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후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은 냉전의 강한 기류로 GHQ의 일본 점령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변한 일본의 현실과 그러한 일본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복잡한 내면을 그리고 있다. 신문사의 임시직인 기가키는 경제부흥을 지향하며 군수산업에 들뜬 일본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관한 외신 기사를 번역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한국 전쟁에 커미트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광장의 고독」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의식한 작품이 사타 이네코의 「바퀴 소리」이다. 이 두 작품은 한국으로 일본인 노무자를 실어 나르는 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은 한국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시모무라 치아키의 「통한가도」와 같이 상기의 작품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작품도 있었다. 「통한가도」는 한국전쟁이 격전을 거듭하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아이고를 통해 한국전쟁의 또 다른 일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패전국 일본’이 아닌 ‘독립국이 된 조선’을 향해 떠나지만, 전쟁으로 인해 다시 일본으로 도망쳐오기를 반복하며 결국 만신창이가 된 아이고의 인생행로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후퇴와 반격을 거듭하는 북한군과 한국군, 그리고 그때마다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 즉 한국전쟁의 참상을 아이고라는 인물을 통해 묘사해 내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고쿠라시의 한 미군 캠프에서 발생한 흑인병들의 집단탈주사건을 제재로 한 마쓰모토 세이초의 「검은 피부의 문신」의 경우, 한국전쟁은 소설의 성립조건인 하나 혹은 사건이 발생하게 만든 간접적인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한가도」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GHQ점령시기의 일본사회와 미국의 병참기지 일본을 그리는 것에 중점이 놓여있고,

점령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한국전쟁은 그러한 일본사회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범위를 확대시키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보다 많은 작품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동시대 문학의 반응을 고찰하기 위해 195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발표된 작품들과 일본의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실린 작품은 북한 체제 지향 혹은 좌익 성향의 작품이 대부분이고, 문학적 완성도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양측의 문학성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일본열도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한반도의 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에 있었다. 일본문학을 참조 틀로 하여 재일조선인의 한국전쟁 표상 작품을 읽었을 때 분명한 것은 비록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재일조선인은 한국전쟁을 함께 싸워왔다는 사실이고, 또한 지지하는 정권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독립된 조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의 자기정체성은 어떤 시기보다 더욱 한반도와 직결된 형태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가지무라 히데키, 김인덕 역(2014)『해방 후 재일조선인운동 (1945-1965)』선인, pp.11-134
 김현희(2015)「일본 전후문학과 한국전쟁-훠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인문과학』(5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275-306
 나카네 다카유키(2010)「훠타 요시에(堀田善衛)『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한국어와 문화』(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187-210
 남상욱(2010)「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비교한국학』 23(1), 국제비교한국학회, pp.11-37
 마루키와 테쓰시, 장세진 역(2010)『냉전문화론: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너머북스, pp.
 소명선(2017)「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 연구-1950년대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74), 한국일본문화학회, pp.97-124
 와다 하루키, 서동만 역『한국전쟁』창작과비평사, pp.107-139, pp.229-349
 伊豆利彦(2002)「朝鮮戦争と日本文学—「記念碑」「玄海灘」「風媒花」」『社会文学』(17)、社会文学会、pp.93-106
 井上ひさし、小森陽一編(2004)『座談会 昭和文学史 第5巻』集英社、pp.267-269
 岩崎稔ほか(2009)『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① 40・50年代』紀伊國屋書店、pp.124-125、p.144
 宇野田尚哉ほか 編(2016)『「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影書房、p.46
 金贊汀(2004)『在日、激動の百年』朝日新聞社、p.94
 梁永厚(1994)『戦後・大阪の朝鮮人運動 1945-1965』未来社、p.106、p.110、pp.124-125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http://www.pow.or.kr/_sub06/sub06_01c.html 검색일자: 2018.06.10

《텍스트》

- 井上靖ほか編(1989)『昭和文学全集 第17巻』小学館
金石範ほか(2012)『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集英社
『大村文学』大村朝鮮文学会、創刊号(1957.07)
『군중』在日朝鮮人文学会, 3호(1952.01), 5호(1952.10)
『조선문예』재일본조선문학회, 4호(1956.12)
『조선문학』해방신문사, 창간호(1957.07)
『朝鮮評論』朝鮮人文化協會, 2号(1952.02)、3号(1952.05)、4号(1952.07)
『朝鮮評論』五月書房, 7号(1953.04)
『白葉』白葉同人会, 4号(1958.01)~8号(1958.11)

논문투고일 : 2018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요**旨〉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와 ‘한국전쟁’
- 1950년대의 일본열도가 본 ‘한국전쟁’ -

소명선

본 논문은 195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에스닉잡지에 게재된 문학작품 중,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대의 재일조선인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총 14편의 소설과 희곡작품으로, 대부분이 휴전협정 전에 발표된 것이고, 시간적 배경은 전쟁이 가장 격심했던 1950년과 1951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간적인 배경은 한반도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이 그 무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번역물로 재일조선인이 창작한 작품은 4편에 불과했으며, 대체적으로 프로파간다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한국전쟁을 문학적 모티브로 사용했다기보다 한국전쟁 자체가 중심테마를 이루고 있었다. 동시대의 일본문학을 참조 틀로 했을 때 재일조선인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인 거리는 제로였다. 일본문학의 경우, GHQ에 의한 점령하에서 한국전쟁으로 급변해 가는 사회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이 한국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형태로 그려내고 있었다.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또 다른 형태의 한국전쟁을 치루고 있었고, 지지하는 정권은 다르지만 모두가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전쟁 시기의 재일조선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Ethnic Magazine of Zainichi Koreans and ‘Korean War’

So, Myung-Sun

In this paper, I study ethnic magazines of Zainichi Koreans in the 1950s, focusing on works based on the motif of the Korean War, and explore how contemporary Zainichi Koreans represent the Korean War. A specific analysis target is a total of 14 novels and plays. The time setting of the work is many in 1950 and 1951. The space of the novel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China and Japan are staged. However, most of the works are translated, and only 4 works created by Zainichi Koreans. These works are not the literary motif of the Korean War, but the Korean War itself is the central theme. When the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was used as a reference frame, the gaze to Korean War of Zainichi Koreans could be said to be zero even though they were leav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Japanese literature, it portrays in various ways that the Japan is deeply involved in the Korea War, while responding sensitively to the rapidly changing Japanese society caused by the Korean War, during the GHQ occupation period. Zainichi Koreans of the 1950s did war of different form Korean War, in the Japanese Islands. Even if the support regime was different, everybody prayed for independence and the peace of the mother country. From this point, Zainichi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could say that it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Korean peninsula.